

# 세계는 지금 •

## ■ 미국 Google社,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 갱신

지난 8월 10일, 미국 Google社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8월 3주부터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을 갱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Google社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검색 알고리즘 갱신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들은 Google을 통한 검색 랭킹에서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 사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Google社는 이러한 검색 랭킹 변화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합법적인 콘텐츠 자료들을 더욱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색 알고리즘이란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검색 엔진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가 요청한 온라인 자료들을 분류·전시하는 전체과정을 지칭함. 온라인 검색 서비스 기업들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정도, 사용자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서로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가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할지라도 기업별로그 검색 결과 및 순위가 상이함

이와 관련해 Google社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43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에 접수되는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가 200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많다고 밝혔다. Google社는 또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 신고 자료들이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oogle社는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자사가 판단할 수 없고 오직 법원만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웹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그의 검색 순위에만 영향을 끼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갱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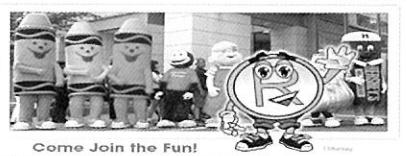
한편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이러한 Google社의 자발적인 검색 알고리즘 갱신 계획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IPEC은 이러한 자발적인 조치가 온라인 해적 콘텐츠의 검색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나 합법적인 지식재산집약 콘텐츠 및 상품 공급자 모두를 위해 온라인 생태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insidesearch.blogspot.ca](http://insidesearch.blogspot.ca)

## ■ 미국 특허상표청, 2012년 국가 상표 박람회 개최 예정

지난 8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10월 19일과 20일에 이틀 동안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소재 USPTO 본부에서 2012년 「국가 상표 박람회(National Trademark Expo)」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박람회는 세계시장에서의 지식재산 가치에 관해 대중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행사이다. 2011년 상표 박람회의 경우 1만 5천명 이상의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자들이 행사를 방문한 바 있다.

USPTO는 이번 박람회에서 교육 세미나, 어린이 워크숍, 전시



회, 진품 및 위조 상품 진열, 등록 상표의 특징을 표현한 복장을 입은 캐릭터 등을 통해 상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USPTO는 박람회 기간 동안 (1) 소기업이 지식재산에

관해 알아야 할 것, (2) USPTO 웹사이트 소개, (3)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상표 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5)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 브랜드의 존중, (6) 위조 및 해적행위 등을 주제로 12차례의 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USPTO는 박람회 관람자들이 미국 정부, 비영리기관, 기업 등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기관들을 살펴보고 상표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 걸스카우트 연맹(Girl Scouts of America), 장난감 제조업체인 Mattel社, 미국 육군(Department of the Army) 등과 같은 기존의 기관들 이외에도 미국 적십자사(American National Red Cross), 미국 개조 자동차 경기 연맹(NASCAR), 러트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 등의 기관들이 새로이 참가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uspto.gov>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제조·생산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본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업별로 고유의 화면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본의 현행 디자인법상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JPO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이 해당 상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디지털 기기 조작 화면 등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즉, JPO의 이번 디자인법 개정 계획은 지식재산으로서 화면 디자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JPO는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화면 디자인에 자동차 운전석의 전자 화면이나 게임기의 화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은 일본에서 출원·등록된 디자인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법 개정안은 2013년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nhk.or.jp>

## ■ 일본 특허청,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 등의 보호를 위해 디자인법 개정 추진

지난 8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조작 화면의 디자인 등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보호 대상 및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디자인법을 검토해 화면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 한편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研究所)는 지난 3월에 현행 디자인법상 화면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상품과의 일체성 요건, 기능 및 조작 요건 등에 관해 검토·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 ■ 일본 경제산업성 등, 직무발명제도 재검토 착수

지난 8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產業省)과 특허청(JPO)은 2012년 내에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

# 세계는 지금 •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 내에 일본,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등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약 2,000 개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용 중인 직무발명제도 방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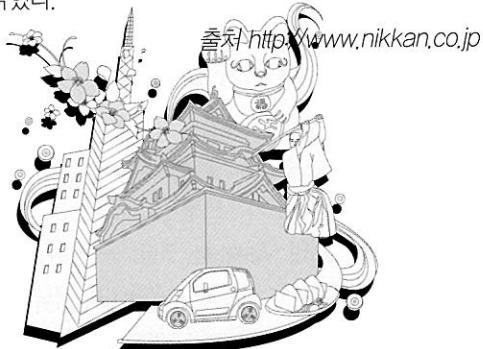
\*일본은 2004년 6월, 「신 직무발명제도」를 골자로 한 특허법을 개정 (2005년 4월 시행)하여, 현재 특허법 제35조 단일조항으로 직무발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인해 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절히 보호·활용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기인했다. 따라서 이번 직무발명제도 재검토에서는 2004년 개정한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조사 및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직무발명제도의 국내외 운용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종업원 발명의 취급을 포함한 바람직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중기계획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의 공정표에는 2012년에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계단체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국내외 운용상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조사연구 및 의견교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비롯한 지식재산관리의 모범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국내기업 1,000개社, 해외기업 1,000개社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문 조사기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일

본·미국·유럽·한국·중국 등 5개국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한 설문 항목은 추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nikkan.co.jp>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 긍정적 평가

지난 8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国家知识产权战略)」 실시 이후 지난 4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은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대 보고서에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을 천명한 이후, 2008년 4월 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요강을 채택하여 같은 해 6월 5일 발표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은 중국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관련하여 중국 경제 성장의 현황을 고려한 중대한 국가 전략 결정이다.

SIPO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해 매년 국가지식재산 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009~2010년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SIPO는 지식재산권 전략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진하여 중국이 세계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돋는다.

각 지방정부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하여, 각 지방의 독특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실시 기구

를 설치하는 등 전략 실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식재산권 전략 체계가 형성되어 지방 정부의 지식재산권 운용 능력이 향상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또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중싱통신주식 유한공사(中興通訊股份有限公司)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를 기업 경영의 모든 과정에 적용하여 발명활동의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고취시킨 결과 PCT 국제특허출원이 세계 선두를 차지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 추진 및 기업의 능동적 참여로 이뤄낸 시기 적절한 국가 전략의 실천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http://www.nipso.cn>

## ■ 중국 인민대학, 「중국 지식산권 5개 단체 전략협력회의」 개최

지난 8월 3일,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쑤저우(苏州) 연구소는 「중국지식산권 5개 단체 전략협력회의(中国知识产权五会战略合作会议)」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5개 대표 협회인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 중국특허보호협회(中国专利保护协会), 중국 저작권협회(中国版权协会),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 중국지식재산권법학회(中国知识产权法学研究会)가 최초로 모여 중국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이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5개 협회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발전

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5개 협회들은 중국의 지식재산 사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해당 협회들은 각 협회가 가진 특수성 및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정보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쑤저우의 셀레늄 밸리 과학기술社와 쿤산(昆山)의 굿베이비社 대표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특히 품질 향상을 위한 각 기업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특허침해 등과 관련된 해외 소송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유럽 특허청, 네덜란드 라이스바이크에 新청사 건립 추진

지난 8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은 네덜란드 헤이그 라이스바이크(Rijswijk)의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스바이크 청사 건립은 EPO의 청장 및 4명의 부청장,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 회장, 법무위원회 회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인 라이스바이크 부시장 및 2명의 건축가로 구성된 심사단(Jury)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심사단은 청사 건립의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컨소시엄으로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시공 및 디자인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2013년 3월 최종적으로 담당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 세계는 지금 •

네덜란드 헤이그 라이스바이크에 위치한 舊청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지났으며, 최근에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새로운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은 2011년 6월 30일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행정협의회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따라 EPO는 청사의 시공 및 디자인 관련 국제 입찰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건설회사, 건축가사무소, 엔지니어링 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입찰이 시작되어 총 10개의 컨소시엄이 서류(디자인, 경비 등)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3개의 컨소시엄이 지난 7월 31일 심사단에 의해 선정되었다.

\*유럽 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는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EPO 및 행정위원회로 구성됨

新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천만 유로이며, EPO는 新청사가 건립되면 라이스바이크의 舊청사를 허물 예정이다. 한편 EPO의 직원은 뮌헨 본사에 약 4,000명, 헤이그에 약 3,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베를린, 비엔나, 브뤼셀에 지사가 운영되고 있다.

## ■ 국제상표협회, 상품외장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세미나 주요내용 소개

지난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상품외장(trade dress, get-up)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세미나는 INTA, 유럽공동체 상표협회(ECTA), 상표변리사협회(ITMA)의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20명의 법조인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상품외장(trade dress, get-up)은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의미하며,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나이가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 세미나에서 영국 지식재산청(UK IPO)과 유럽 상표디자인(OHIM)의 관계자는 등록상표 및 등록디자인의 보호 형태에 관해 발표하고, 색채 및 모양과 같은 상품외장을 상표로 등록·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Mars社의 관계자는 '기생적 복제(parasitic copying)'를 유사한 외형을 만들기 위해 여러 특징들을 혼합함으로써 기존 브랜드를 모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Mountainview Learning社의 관계자는 '제품 인식 심리학(Psychology of Product Recognition)'이라는 강의를 통해, 상품외장 및 브랜드는 제품을 더 빠르게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FTI Consulting社의 관계자는 브랜드의 가치 측정 및 유사물(look-alikes)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수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는 담배제품에 대한 영국 정부의 표준 및 간편 포장법(standardized or plain packaging)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De Simone & Partners社의 관계자는 이러한 담배 포장법이 흡연율 감소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연합(EU) 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ECTA의 입장은 설명했다. 이에 관해 핀란드의 Max Oker Blom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담배 간편 포장법은 ① 담배 포장에서 브랜드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직 가격으로만 상품을 구별하게 되어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② 상표와 제품 간의 연결고리를 제거하여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위조 상품 간의 구분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inta.org>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